

# IMF가 우리나라 부채비율 증가 속도가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빠르다고 경고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.

## <보도내용>

- 2025.12.21. 서울경제는 ‘IMF의 경고... 韓 나라빚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빨리 증가’ 기사에서,
  - “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(GDP) 대비 정부 부채비율이 향후 5년 동안 전 세계 비기축통화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(IMF)의 분석이 나왔다.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
## <기획재정부 입장>

- IMF는 재정모니터(Fiscal Monitor)를 통해 국가별 재정통계를 제시하고 있으나, 기축·비기축통화 국가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, “우리나라 부채가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빨리 증가”한다고 경고하거나 “향후 5년 동안 전 세계 비기축통화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” 분석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아울러, IMF는 연례협의 보고서(11.24일)에서 우리 재정여건에 대해 전망기간(~’29년) 동안 부채는 지속가능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, 상당한 재정여력을 확보할 것으로 평가\*하고 있습니다.

\* “Central government debt remains sustainable, with substantial fiscal space over the forecast period.”

담당 부서	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과	책임자	과 장	황희정 (044-215-5740)
		담당자	사무관	신지호 (shinjih07@korea.kr)